통도사 항일운동 면면을 만나다

양산시립독립기념관 '영축산 외침' 특별전

12월 14일까지 항일유산 전시
구하 스님 저항시 등 첫 공개
명신학교 등 배일교육 조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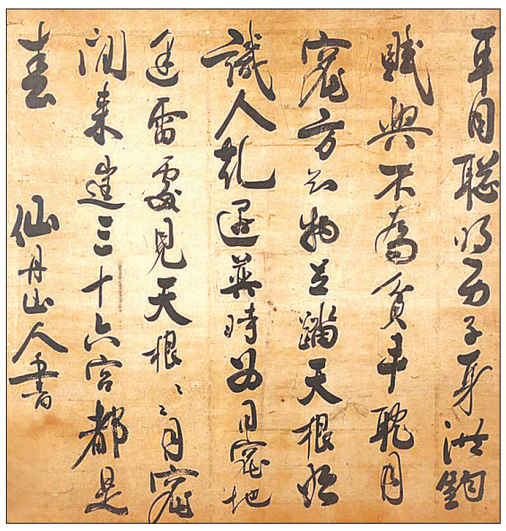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광복 80주년을 맞아 통도사 항일운동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양산시립독립기념관(관장 신용철)이 광복 80주년과 개관 2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영축산의 외침, 나라를 깨우다'를 8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지역 불교계가 간직한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뜻깊다.

전시는 통도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다룬다. 통도사의 수행자들은 수행과 포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대적 고통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구하 스님, 만우 스님, 김말복 스님 등은 불교적 신념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며 항일운동의 최전선에 섰고, 그들의 행적은 불교가 공동체와 나라를 지켜 낸 호국의 실천이었음을 보여 준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만해 한용운, 백초월, 오택언 등과 함께 통도사 지방학림이 이끌었던 경남 최초의 '신평만세운동'을 다룬다. 성해 선사 회갑기념사진, 통도사 금강계단중수보조기 현판, 한용운과 오세창의 유묵, 백초월의 사군자 등이 전시돼 당대 항일 열기를 생생히 전한다. 불교계 인물들이 수행의 자리를 넘어 행동으로 나섰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구하 스님이 쓴 저항시. 양산시립독립기념관 기획특별전에서 처음 공개된다.

2부에서는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의 활동이 집중 조명된다. 스님은 사찰 재정 일원화를 통해 불교계를 안정시키고, 불교잡지 간행으로 사상적 토대를 확산했으며, 상해임시정부 재정 지원에 나서는 등 항일운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천했다. 전시에서는 구하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구하역사, 축산보림 초간본, 일본 방문 당시 남긴 유묵 등이 최초 공개돼 눈길을 끈다.

3부는 통도사가 설립·운영한 명신학교와 통도중학교의 배일교육 활동이 주요 전시 내용이다. 1939년과 1967년의 졸업앨범, 학적부, 제적부, 사설강습회 인가신청서 등 다양한 원본 자료가 전시되며,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항일정신의 요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통도중학교 배일교육의 실체를 증명하는 인물 사진과 문서들이 처음 공개돼 역사적 진실을 뒷받침한다. 이는 불교계가 미래 세대의 의식을 일깨우고 민족의식을 교육으로 전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는 구하 스님의 회갑기념시와 유묵, 통도중학교 졸업대장과 제적부 등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 자료들을 통해 불교계 항일운동의 구체적 모습을 새롭게 드러낸다. 관람객들은 통도사가 지역 사회와 함께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철 양산시립독립기년관장은 "이번 전시는 통도사의 정신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전시를 통해 지역의 자긍심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 지화, 국가폭력 희생자 위로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 꽃잎, 풀림 의례'展
불교 지화 100점 전시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영령을 불교 지화로 위로하기 위한 전시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재, 꽃잎, 풀림의 의례(Ashes, Wounds and Paper Petals)'를 주제로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반세기 넘게 불교 지화(紙花, 종이로 만든 꽃)를 제작해 온 삼척 안정사의 다여 스님이 만든 100여 점 작품으로 구성됐으며,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해원(解寃)의 의미를 되새긴다.

다여 스님은 일제강점기 금강산 유점사에서 안정사로 전해진 희귀한 불교 지화를 계승·복원해 왔다. 스님의 종이꽃 하나하나에는 교의 상징과 전통 기법이 담겨 있으며, 이는 단절 위기에 놓인 문화유산을 되살리는 동시에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무언의 헌화다.

전시는 기념관 M2(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1층부터 5층까지 공간별 의미와 상설전시 맥락을 살려 구성됐다. M2는 1970~80년대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던 공간이다.

작품들은 '살잡기'라 불리는 전통 주름 접기 기법으로 제작됐다. 이어 붙임 없이 종이 한 장으로 구현되는 꽃의 형태는 불교의 깊은 정신성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는 금강법계대일여래화(중생의 청정심 형상화), 약사여래칠불공덕화(해탈 상징), 묘법연금광명대바라화(언어를 초월한 진리 전수) 등 특별히 고증·재현된 작품도 선보인다.

전시 기획자인 김현진 전시감독은 "지화를 통한 해원은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는 '풀림'을 뜻한다."며 "어두운 기억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조용한 의례이자 치유의 행위"라고 전시의 의의를 설명했다.

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모든 죽음을 가시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며 "기억·치유·화해를 향한 문화적 실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전시가 열리는 기념관 M2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돼 전시 관람을 하려면 사업회 누리집(kdemo.or.kr) 예약이 필수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⑦ 천수천안

사랑이 이토록 지극하네

무릎 꿇으며 두 손바닥을 모아 천수관음 앞에 축원의 말씀 올리나이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지니셨으니, 그중 하나를 내어 저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두 눈이 없는 저에게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일연 스님(1206~1289)이 지은 〈삼국유사〉 '탑상' 조에 실린 향가이다. 신라 경덕왕 때 한기리에 살던 여인 희명의 아이가 다섯 살 무렵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분황사 전각 벽에 그려진 천수대비(千手大悲) 앞에 갔다. 그곳에서 아이가 이 노래를 지어 빌자,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다고 한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듣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왜 소리를 본다고 했을까? 여기서 '관(觀)'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깊은 연민으로 가슴에 받아들이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헤아리며 그 고통에 응답하는 마음이다. 가슴과 머리가 동시에 울리는 것이 '관'이다.

'천수천안(千手千眼)'은 문자 그대로 천 개의 손과 눈을 의미하지만, 그 수가 한정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만이 되고 천만이 되어, 결국은 무량하다. 이는 고통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무량한 손과 눈으로 존재하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위로하기에 '응신(應身)', '화신(化身)'이라 불린다. 그래서 경전과 불화에는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출현한다.

관세음보살은 '대비(大悲)'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대비란 깊은 연민과 공감을 뜻한다. 눈과 귀와 가슴으로 중생의 고통을 끌어안는 마음이며, 그 마음에서 지혜와 사랑이 나온다. 그런데 내가 대비의 마음으로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아파한다면 내가 즉시 관세음보살이 된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관세음을 불러내자.

"나무 보문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南無 普門示現 願力弘深 大慈大悲 救苦救難 觀世音菩薩)."

차별 없이 모든 곳에 나투시어 중생을 구제하시는 이여, 크신 원력과 한없는 자비로 고난의 신음을 듣고 달려오시는 분, 당신의 이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화순 불암사 주지〉

웹진 '님' 신인문학상 허진경·최재준 시인

8월 16일 만해학회 세미나서


허진경 시인


최재준 시인

만해학회가 발행하는 시 전문 웹진 〈님Nim〉 신인문학상에 허진경 시인과 최재준 시인이 선정됐다.

만해학회는 8월 16일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열린 '제27차 학술세미나'에서 '제2회 〈님Nim〉 신인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허진경 시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KAIST 문화기술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최재준 시인은 워싱턴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보잉기술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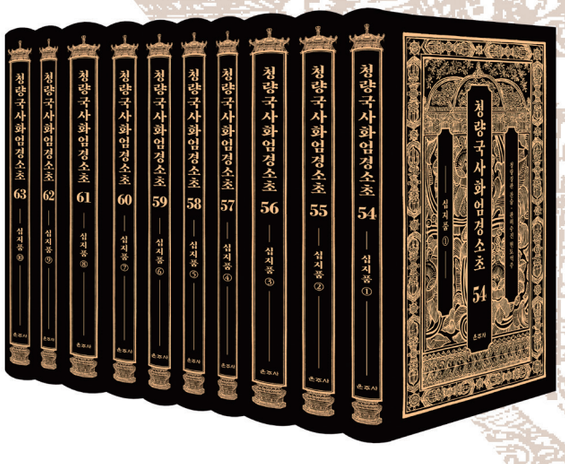
심사를 맡은 유종인 시인은 허진경 시인의 작품 '파노라마' 등에 대해 "시적 드라마로 견인하듯 독자를 지적 재미의 관객으로 유인하는 연출과 눈썰미가 완연하다"고 평가했으며, 최재준 시인의 작품에 대해서는 "사물과 정황을 헤아리는 눈길이 따뜻하고 그 구체적인 정감을 의미와 결속하는 자연스러움이 시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만해학회 '제27차 학술세미나'는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을 기념해 '중도와 조화의 시대, 〈님의 침묵〉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김광원 시인이 기조 논문 '만해와 〈님의 침묵〉과 화엄 사상'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문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인 90인의 만해시 감상평을 모아서 엮은 〈님의 침묵, 다시 읽다〉의 낭독회도 함께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6차분 10권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63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십지품」 10권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